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2년도 제11호

체육공약 분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체육공약 집중 분석

김세훈 스포츠경향 기자

울산시체육회

울산시체육회 법정다툼까지... “울산시나서야”

공웅조 KBS NEWS 기자

체육인재개발원

체육인 교육의 요람 ‘체육인재개발원’ ..장흥에서 첫 삼!

오선열 YTN 기자

스포츠인권 관련 연구용역보고서

운동선수 58%, 여전히 폭력 경험... “유관단체, 인권으로 평가해야”

강승연 헤럴드경제 기자

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윤리센터, 2022년도 ‘인권살피미’ 활동 개시

강필주 OSEN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체육공약 집중 분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운동 기간 체육계 행사에 종종 참여했고 관련 정책도 내놓았다. 국민의힘 설명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이 기간 체육 관련 행보를 한 것은 10여차례다. 윤 당선인 측 체육정책을 분석한다.

<정책 수립 기본 방향>

균형과 조화로 압축된다. 체육 관련 과제를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가르거나 정책 방향을 과거 정부와 다른 쪽으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은 거의 없다. 스포츠시장을 키우고 공공과 민간 사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등 성장·확장에 무게가 실린다.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연결함으로써 복지를 강화하고 시장도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정책 분석 및 실행 포인트>

△국민 스포츠 인센티브 : 운동량에 따른 의료비 절감분을 건강보험료로 환급한다는 게 골자다. 디지털플랫폼을 이용한 측정과 데이터 기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

정확한 운동량 측정 및 검증이 중요하다.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가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측정돼야 한다. 실내체육 시설 이용료를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는 개인은 더 운동하도록 유도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은 시설업에도 활기를 불어넣자는 취지다. 이용 내역은 공급자와 사용자가 상호 인증 및 검증하는 식으로 집계되리라 예상된다.

두 개 공약 모두 운동하면 의료비절감, 노동생산성 제고 등 사회적 편익이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인센티브 범위와 사회적 편익이 최적의 조건으로 들어맞는 포인트를 찾아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유청소년 및 노인체육활동 지원 : 유치원·어린이집 스포츠지도사 파견, 학교 스포츠강사 확대, 초등체육교육 지원, 시니어 친환경 스포츠인프라 확대 등이다. 유아체육 전문가 전선혜 중앙대 교수는 “체육교육이 교육과정에 비중있게 반영되는 게 핵심”이라며 “현장 전문가가 정책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과정에 투입돼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웃도어 레저스포츠지원 : 파크골프장 확충, 낚시 규제완화 및 활동지원, 캠핑 활성화가 세부정책이다. 환경 훼손을 피하면서 규제를 풀고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지금까지 규제중심으로 제한된 아웃도어스포츠를 활성화 하겠다는 것이다. 레저스포츠가 활성화하면, 스포츠시장이 확대하고 일자리도 늘어난다.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스포츠활동도 장려할 수 있는 접점을 찾는 게 필요하다.

△체육재정 확대 : 국가 체육 재정은 세금과 기금(체육기금)으로 총당된다. 체육기금은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토토)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다. 2021년 중앙 정부 체육 예산은 1조7594억원이다. 그중 세금은 1636억원뿐이고 나머지 1조5958억원이 체육기금으로 총당됐다. 손석정 전 남서울대 교수는 “체육기금은 체육계에 투입돼야 하는 목적기금”이라며 “더 많은 체육기금이 체육계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스포츠 사회적 기업 육성 : 노인, 취약계층을 위한 스포츠 지원 활동을 하는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한다. 운동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에 국가재정을 투입해 스포츠 복지를 강화하는 정책이다.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재검토 : 스포츠혁신위는 2019년 정부 유관기관을 등에 업고 학생 선수 활동을 크게 위축하는 정책들을 과도하게 밀어붙였다. 이게 전문체육계, 학생운동부로부터 반감을 초래했다. 학생 선수가 선수로서 꿈과 학생으로서 학습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추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공약이다.

다음 장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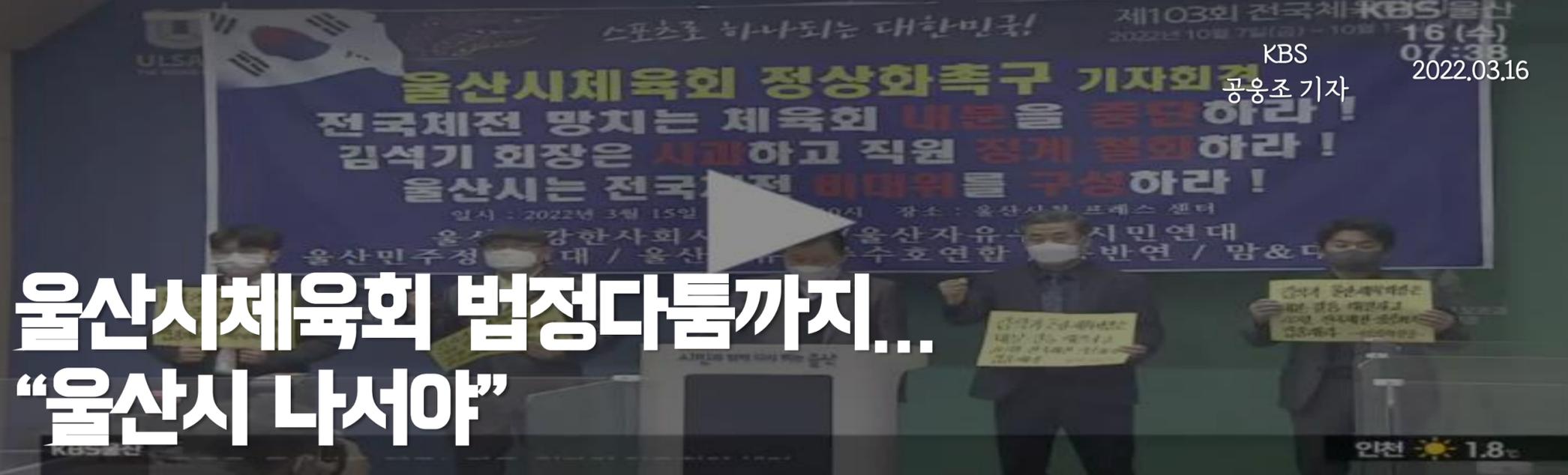
△e스포츠, 미래산업으로 육성 : 관련 대학 학과 개설, 지도자 자격증 제도 도입, 체육진흥투표권(토토)에 e스포츠 추가, 상무팀 창단 지원 등이 담겼다.

△전문 체육 육성 관련 정책들 : 실업팀 운영 지원 확대를 통한 전문체육활성화, 체육인공제회 설립, 실효성 있는 스포츠 인권 문제 신고 시스템 구축, 스포츠팀 창단·운영 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이다. 서비스 공급자인 전문 체육인과 소비자인 생활체육인을 서로 연결함으로써 국민스포츠권을 보장하고 체육계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전문 체육과 생활 체육 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범부처 통합 거버넌스 구축 필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부사법행정, 경제1, 경제2,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등 총 7개 분과위원회를 뒀다. 체육은 사회복지문화에 들어간다. 사회복지문화 인수위원 3명 중 체육 인사는 없다. 스포츠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 혼자 힘으로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환경부 등과 협조가 절실하다.

지난 2월 시행된 스포츠기본법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설립된다. 위원회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장관·교육부 장관·문체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은 위원으로 참석한다. 동시에 문체부 2차관,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차관조정회의도 열린다.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체육 정책 관련 부처 간 협업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담당한다. 김대희 부경대 교수는 “국무회의 수준의 국가체육정책위원회를 어떻게 효율적 운영할지 방안이 마련돼야한다”며 “스마트헬스케어, R&D 기반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참여가 필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에 빠진 점도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시체육회 법정다툼까지... “울산시 나셔야”

울산시체육회 회장과 전 사무처장의 내부 갈등이 결국,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졌습니다.

해임이 부당하다며 전 사무처장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시민단체는 전국체전 준비가 먼저라며 두 사람이 다툼을 멈추지 않을 경우 울산시가 극약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용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오흥일 전 울산시체육회 사무처장.

지난주 해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회장 선출을 놓고 법정 공방 끝에 재선거까지 치렀는데 이번에도 결국 법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됐습니다.

문제는 17년 만에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이 200여 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울산시체육회가 별도의 특수법인이라 인사문제에 관여하기 어렵다는 울산시는 여전히 원론적인 태도입니다.

[최영만/울산시 체육지원과장 : "(회장과 전 사무처장이)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끝까지 한 번 찾아보자... 제일 중요한 건 직원들이 신명 나게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갑시다 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나 울산 체육계의 한 인사는 회장은 재판준비로 바쁠 것이고 사무처장은 해임돼 결국 직원들만 체전을 준비하게 될 거라며 이럴 거면 체육회 존재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10월 취임한 김석기 체육회장은 오는 6월 교육감 선거 출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장과 전 사무처장의 갈등이 견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울산지역 시민단체들이 나섰습니다.

당장 체전 준비가 급한 만큼 두 사람이 징계와 소송을 철회하지 않으면 직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우탁/울산건강한사회시민연합 대표 : "현 상황 지속 시 조례를 제정하여 가맹 단체장 중심의 비대위를 구성하고,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한다."]

또 올해 300억 원 가까운 보조금을 체육회에 지원한 울산시가 수수방관하지 말고 내년 보조금의 대폭 삭감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시민사회는 주문합니다.

KBS 뉴스 공용조입니다.

체육인 교육의 요람 '체육인재개발원' .. 장흥에서 첫 삽!

50만 체육인 교육의 요람이 될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건립 공사가 전남 장흥에서 첫 삽을 떼었습니다.

장흥군은 체육인재개발원이 들어서면 지역 경제 발전은 물론 국제 스포츠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기자]

푸른 강물과 드넓은 평야가 어우러진 정남진 장흥댐 부지,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건립 공사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첫 삽을 떼었습니다.

[이기흥 / 대한체육회장 : 동절기에 우리 선수들이 훈련하기 위해 해외로 많이 가는데 이쪽은 겨울에 일단 따뜻하고, 겨울 훈련도 가능하고 입지가 다른 곳에 비해 아주 좋아서 이곳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국비 313억 원을 투입해 축구장 20여 개를 합친 규모로 지어지는 체육인재개발원에는 체육인 교육 시설과 숙박시설, 그리고 다목적 체육관이 들어섭니다.

매년 12만 명의 전문 체육인들이 이곳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여름과 겨울에는 전지훈련 장소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영록 / 전라남도지사 : 지역경제도 살려주시고, 전라남도 관광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체육 부분에 대한 투자도 대폭 늘려서 체육인재개발원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흥군은 스포츠 마케팅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스포츠 산업단을 만들고, 또 양궁장과 럭비장, 조정 경기장 등을 갖춘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 장흥군수 : 개발원 준공과 함께 모든 대한민국 스포츠의 인프라가 갖춰진다면 이 지역은 교육, 그리고 전지훈련과 경기가 함께 이뤄질 수 있는 요람이 될 것입니다.]

전문 체육인 교육의 요람이 될 전남 장흥.

국제스포츠 도시로의 도약과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과 소비 촉진 등 경제 효과도 따라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운동선수 58%, 여전히 폭력 경험... “유관단체, 인권으로 평가해야”

〈표 V-14〉 스포츠선수 폭력 경험 및 인식

문항	운동을 하면서 맞은 적이 있다.	
	있다	없다
	528	380
기술통계 (n=908)		

운동선수 절반 이상이 운동을 하면서 폭력을 당했으며, 주변의 폭력·성폭력 경험 사실도 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체육계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폭로 사태 등을 겪으며 운동선수들의 인권 증진 노력이 이어졌지만, 현장에서는 폭력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주는 결과다.

1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부경대 산학협력단에 의뢰, 제출된 ‘스포츠인권 현장·가이드라인 정비 연구’ 용역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해당 보고서 연구진은 초·중·고·대학교의 성인·장애인 운동선수 9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선수 58%는 ‘운동하며 맞은 적 있느냐’를 묻는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 ‘운동을 하면서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황이 일어나고 있느냐’는 질문엔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57%는 “본인이나 동료가 폭력·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적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폭력 경험 이후 주변 가족이나 동료 또는 외부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는 경우가 75%에 달했다. 폭력·폭행 발생 시 대처 방안과 처리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는 응답도 83%에 이르렀다. 성희롱·성폭력의 경우에도 대응 매뉴얼이 ‘없다’는 답변이 83%였다.

스포츠인권 관련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거나 선수·지도자 등 관련자 대상 인권교육이 실시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각각 27%와 2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스포츠 분야에서 인권보호는 잘 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지 않다’는 답변 비중 역시 26%로 가장 높았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인권위가 2010년 스포츠인권 현장·가이드라인을 채택한 지 1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현장에서 선수들이 느끼는 변화가 크지 않다는 방증이다. 2019년 체육계 ‘미투’ 사태와 그 이후에도 이어진 각종 폭행 사건들도 이를 뒷받침한다.

연구진은 기존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이 폭력·성폭력·학습권에 대한 분야별 가이드라인으로 적용에 한계가 있다며, 스포츠인권 현장을 중심으로 괴롭힘·학대, 폭력·성폭력, 학생선수, 성평등, 차별금지에 대한 각각의 가이드라인 정비 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체육단체·지방체육회 평가에 ‘인권증진’을 포함하고, 스포츠인권 현장·가이드라인 적용·활용 여부를 평가지표로 활용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지속적인 이행점검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체육단체들과 유기적 협력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도 부연했다.

체육의 공정성 확보, 체육인의 인권보호
2022년도 스포츠윤리센터 인권감시관(인권살피미) 위촉식·워크숍
2022. 3. 18. (금)

스포츠윤리센터, 2022년도 '인권살피미' 활동 개시

스포츠윤리센터(이하 '윤리센터', 이사장 이은정)가 2022년도 인권감시관(이하 '인권살피미')을 위촉하고,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 예방 활동을 시작했다.

윤리센터는 1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2022년도 스포츠윤리센터 인권살피미 위촉식'을 개최하고, 인권살피미 30명을 위촉했다.

이은정 윤리센터 이사장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위촉식은 이사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위촉장 수여식, 기관 및 인권살피미 역할 소개, MZ세대 이해 교육, 토론 및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위촉된 인권살피미 중에는 체육인 출신 변호사와 경찰 출신 체육 교사, 국가대표 장애인체육인 등 체육계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체육 현장을 들여다볼 수 있는 특색있는 이력의 전문가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날 위촉된 인권살피미는 올해 말까지 약 10개월 동안 활동한다. 선수 훈련장과 합숙소, 스포츠클럽, 대회장 등 전국의 체육 현장 곳곳을 방문해 스포츠 인권침해·비리 예방 및 홍보 활동을 펼친다.

장애인수영 국가대표 출신의 인권살피미 조영진 씨는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체육 환경이 비교적 열악한 것은 사실이다."며 "보다 나은 장애인 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위촉 소감을 밝혔다.

이어, 체육인 출신 변호사인 인권살피미 장권수 씨도 "체육 현장을 직접 방문해, 선수뿐만 아니라 감독, 관리자 등 다양한 체육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모든 체육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펼치겠다"라고 위촉 소감을 밝혔다.

이은정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인권살피미의 역할을 체육계 현장으로 한정 짓지 않으려 한다"라며 "여러분께서 가진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 기관과 더 나아가 체육계 발전을 위한 조언을 아낌없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인권살피미는 지난해 강원과 경북, 충남 등 전국 각지에서 개최된 10개 대회를 방문해 활동을 펼쳤다. 올해는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훈련장과 합숙소 등 체육 현장을 직접 찾아가, 선수와 지도자, 학부모 등 체육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인권침해 및 비리 요소가 확인되면 윤리센터에 관련 제도개선 권고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인권살피미'는 '체육인과 동등한 위치에서 체육 현장을 두루두루 살피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닌 인권감시관의 외부 활동 명칭으로, 기존 '인권감시관'이라는 명칭이 다소 권위적이라는 체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달 내부 공모를 통해 확정했다.

주간 스포츠 소식

스포츠 비용 나누고 효과 더하고... 충청 4총사, 상생 영역 넓힌다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321012006&wlog_tag3=naver

이천시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 건립 사업 착공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20320010003814>

스타벅스, 창원NC 홈구장 입점...스포츠 마케팅 '확장'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8875>

코로나에 사회적 고립 역대 최고...국내여행·스포츠 관람 반토막

<https://www.yna.co.kr/view/AKR20220315080000002?input=1195m>

미국, '북한 노동력' 활용한 중국 스포츠웨어 수입 금지

https://www.ytn.co.kr/_ln/0104_202203161140017962

인천광역시체육회, 제2대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위촉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6005>

[인터뷰] 스포츠 파고든 AI 중계... "KT 5G 연결하니 더 정확하고 짜릿"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94770/?sc=Naver>

강원도, 눈 없는 나라 동계스포츠 청소년 선수 전지 훈련 지원

<https://www.yna.co.kr/view/AKR20220318049800062?input=1195m>

고성에 국제 축구장 규모 '에어돔' 선다...스포츠 마케팅 극대화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31913181545099>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